백색맹, 십자가 포로 못되는 이유

(역대상 25:1~31)

1.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2.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3.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뱌와 맛디디야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4.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맛다냐와 웃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5.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6.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7.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이백팔십팔 명이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백색맹, 십자가 포로 못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백색맹, 십자가 포로 못 되는 이유'

색맹은 망막의 원추세포 이상으로 색깔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색맹은 크게 적색맹, 녹색맹, 청색맹의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각각의 색깔의 식별이 어려운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색맹 중에 백색맹이 있다면 문자 그대로 흰색을 식별하지 못하는 상태일 것입니다. 실지로 시각적으로 백색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백색맹이 있어서 영적으로 흰색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다른 색맹들에 비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육체적 색맹은 구원받고 행복하게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마음의 백색맹은 십자가의 매력과 가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사로잡힐 수 없고 십

자가 생활화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론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가치임을 잘 알고 있더라도 실제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와 매력이 마음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죄가 사해진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는다면 이상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라는 말을 생전 처음 들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어떻게 생활화하느냐고 되물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곧 백색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사로잡힌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혹은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에 사로잡힐 때에 어떻게 될까요?
남시언 님의 "1인분 청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돈을 입에 달고 다니는 청춘들을 많이 만났다. 입만 열면 돈 돈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지를 궁리한다. 좀 더 멋진 일을 찾거나 자신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일을 찾지 않고 좀 더 많은 돈을 주는 곳만 찾아다닌다.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무슨 업무를 담당할지는 묻지 않고 연봉이 얼마인지를 묻는다. 그러면서 시켜만 주시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돈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입만 열면 돈 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한편 십자가에 사로 잡혔다면 입만 열면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무슨 일이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사업이 안 될 때에도, 배우자를 볼 때에도, 부모가 자녀를 볼 때에도, 혼란스러운 나라의 상태를 볼 때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세"라는 새마을 노래가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풍요와 다산을 향한 바알 숭배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두 박으로 묶인 시대동안에 우리나라는 돈 노래를 부르며 살았는데, 지금 그 결과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차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돈 노래를 불러서 나라가 많이 발전했다지만 돈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8명의 재벌 총수들이 국회청문회에 나올 때에 그 얼굴에서 행복한 빛이 보이는 사람이 없었는데 대한민국에 행복이 사라진 이유는 돈 노래를 부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돈 노래가 불릴 때에 어딘가 한쪽에서는 단호하고 확고하게 십자가 노래가 들렸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은 불리고 있었지만 십자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마7: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사로잡히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매순간마다 연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노래가 불리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이고 십자가에 사로잡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백색맹이기 때문입니다.

사1: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오라'는 것은 십자가 구원의 사건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으로의 초대를 색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홍과 눈과 같은 흰색, 진홍과 양털 같은 흰색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홍과 진홍으로 상징되는 것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고 추잡한 일인가를 모른다면 구원의 십자가 복음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주홍이 끔찍한 색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눈과 같은 흰색이 어떤 것인가를 보아야만 합니다.

주홍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주홍색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야 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야 하고 끔찍하게 느끼고 깜짝 놀라기 위해서는 눈처럼 흰색이 마음에 보여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 달러의 계약을 맺으려는 상황에서 복장을 참고하기 위해 책을 보니 말끔한 복장을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하얀 실크 와이셔츠를 사고 양복을 새로 맞추고 깔끔하게 목욕을 하고 이발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다가 그만 김칫국물을 셔츠에 떨어뜨리고 말했습니다. 주홍색 자체는 아름답습니다만 그러나 하얀 실크 와이셔츠에 떨어진다면 그처럼 더럽고 원망스러운 색은 없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와 매력을 알기 위해서는 이 흰색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아야 사로잡히고, 사로잡혀야 입만 열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기 변론을 위한 마지막 시간을 부여 받았을 때에, 자기를 방어하거나 변론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은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아주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적당히 좋은 것으로서 남겨둘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배설하지 않으면 변비가 생기는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매력을 알게 되면 이 정도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 이유는 주홍과 진홍 같은 붉음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 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고 흰색을 못 보는 백색맹이기 때문입니다. 백색을 볼 수만 있다면 십자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가치에 눈뜨면 장사를 하면서도 십자가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성전의 찬양대를 결성합니다. 앞서 레위

인의 성전봉사자를 이십사 반차로 조직했고, 또한 성전의 제사장들도 이십사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노래하는 자들도 이십사 반으로 조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성전에 투입된 금 십만 달란트와 은 백만 달란트는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경 3,500조원의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가치로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거금을 쥐었을 때에 느끼는 것과 같은 감격을 성전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십억이 생겼을 때의 기쁨은 십자가로 인한 기쁨보다 더 엄청날 것인데 그렇다면 아직 십자가의 매력과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평생 봉사하는 레위인의 예를 통해서, 우리도 성전의 의미를 완성시키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따르는 것을 평생 직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예를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하늘을 통해서 땅을 연결하는 커넥티드 맨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전화를 인터넷에 연결하면 스마트폰이 되지만, 진짜 정보의 바다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그 전지하심에 연결되었던 솔로몬은 스마트 왕이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노래하는 자들을 이십사 반차로 조직한 것은 십자가에 사로잡히라는 것을 뜻합니다. 앞에서는 십자가의 가치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가치를 앎으로 십자가를 직업으로 삼아야 됨을 알았습니다. 그 직업 활동은 하늘을 연결하는 것인데 땅에 있는 자로서 가는 곳마다 하늘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실제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 가치가 활성화되고, 레위인처럼 생활화하고 생활화함으로서 연결하려면,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성전의 의미인 십자가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노래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노래할 정도로 마음이 사로잡혀야만 하는 것이고 노래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것은 꼭 가락에 맞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항상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돈 문제도 보고, 내 몸의 건강 문제도 보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사로잡혀서 노래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신구약을 합해 단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성전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성전의 의미는 아브람의 할례 언약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창17: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일이 터졌어도 그 일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내 앞에 계심을 알고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관심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언약의

증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노래하는 자들을 선정하는데 군대가 투입이 됩니다. 군대처럼 절박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성전에 대한 노래가 먼저인데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기억하기 위해서 성전에 마음을 대입합니다. 군대처럼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먼저이고 성전이 우선인데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어떤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느냐면 이게 바로 색깔인데 색깔론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을 모시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흰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막9:3절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을 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고 합니다. 그토록 광채가 나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을 때에 얼룩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흰색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망가졌을 때 옛날에는 눈대중으로 하다 보니 새로 덧칠한 곳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정확하게 똑같은 성분의 색깔을 만들어 내므로 표시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흰색을 보면 화이트 크림, 폴라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펄, 화이트 크리스탈, 퓨어 화이트 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흰색은 어떤 색이어야 합니까? 디바인 화이트, 홀리 화이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외의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하얀 실크 와이셔츠에 김칫국물이 떨어진 것처럼 마음이 주홍빛으로 더러워지고 추잡해집니다.
이 더러움을 보아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더러움을 알면 십자가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이 주홍색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색깔이 디바인 화이트라는 것을 보지 못하면 주홍색이 들어오든 검은색이 들어오든 더러운 줄을 모릅니다. 내 마음이 디바인 화이트라는 것을 알아야 더러운 것을 알고 더러운 것을 알아야 죄를 보고 십자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잡아서 더러워진 마음이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디바인 화이트가 되면 성령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을 느끼고 체감합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아야 십자가의 가치가 돈 좋아하는 사람에게 1경 3,500조의 가치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홀리 화이트로 하나님을 모셔 들였을 때 얼룩이 나지 않게 만들어진 색깔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있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 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시면서 색깔로 표현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을 때 나타나신 광채 나는 흰색으로 여러분의 마음도 디바인 화이트가 되어야 하나님과 연합해도 얼룩지지 않고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색깔이 얼룩이 가고 구분이 되어서 이 흰색을 볼 수 없다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밤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들은 교회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면 다른 색깔이고 얼룩이집니다. 그런데 그 얼룩짐이 더러움이라는 것을 모르니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고 십자가 노래를 부르지도 못합니다.
십자가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체질이 끊임없이 이 세상 것을 끌어들여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틈만 생기면 세상 것을 끌어들여서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또한 조금 이루어지면 만족하고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강한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 다음 날은 또 근심합니다. 잠시잠깐 틈만 생기면 우리 마음은 이 세상 것을 빨아들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원죄의 체질입니다.
이 체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셔 들이려면 십자가를 달고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흘리신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을 계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서 마음에 디바인 화이트의 색깔을 늘 보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얼룩진 것을 보면 얼른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더라도 로마를 뒤집는 복음을 로마 전역에 뿌려놓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입만 열면 십자가 노래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가치와 매력을 모르니 사로잡히질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색깔이 디바인 화이트, 홀리 화이트로 하나님의 흰색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더러운 죄에 둔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색깔인 디바인 화이트를 식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십자가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십자가 노래를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